

안 그래픽스 인쇄 · 사진 ·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ahngraphix@gmail.com	구나영 보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새로이 65세 되시는 분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 구나영 아가다 678-665-4228	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PIWC Group Agency 자동차 · 집 · 사업체 · 중립원 상해 보험 강인욱 베드로 404-644-8658	SB 건축&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오즈 냉 동 에어컨 · 히팅 ·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AAA Insurance 이창호 보험(바오로) 자동차/주택/메디케어 678-910-0884 2628 Pleasant Hill Road #700 Duluth, GA 30096	SMILE 1 DENTAL GROUP 스마일원치과 김세희 소화테레사 김상윤 요셉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Brighter Smiles 잔스크릭 치과 www.brsmilesdmd.com 470-719-0213 7775 McGinnis Ferry Rd Ste 202, Johns Creek, GA	미소 치과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SONAMOO 소나무 Auto Repair 리버밴드 오토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FARMERS INSURANCE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70-282-1654 3775 Venture Dr. #M202
ALFONE LIFE FINANCIAL & INSURANCE SERVICE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JOYNUS CARE 간병인 수시 모집 김경숙 소화테레사 404-457-6703 3120 Crossing Park NW, Norcross, GA 30071 / info@joynuscare.com	미래의 대비와 준비 / 학자금 상속 / 은퇴 / 생명보험 / IRA 장기요양보험 / 오바마의료보험 오선주테레사 보험 714-579-5422	배옹자 루시아 보험금융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펀드 678-665-5400 3720 Davinci Court, Suite#150 Peachtree Corners, GA 30092	정토니 안토니오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더조은 척추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Better Homes and Gardens REAL ESTATE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kw KELLERWILLIAMS.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만 천 흥 명품중식 레스토랑 신자분 5인이상 10% 할인 우대 770-454-5640 매주 월, 화요일은 쉽니다.	부동산 전문인 SINCE 1999 VINEYARD REALTY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토지 조셉 김 678-361-6230 켈리 김 770-634-5646	부동산 전문인 Pinehill Realty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벌 · 유언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오민환 파비아노 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Fairway Home Loan *주택융자 *상업융자 최윤석 융자 404-578-1426 3483 Satellite Blvd Ste 201S, Duluth, GA 30096	주보 광고 문의 kmccga.jubo@gmail.com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leelaw.com 3483 Satellite Blvd #211S, Duluth (파리바게트 맞은편)	TOP 조정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남기원 요한 404-966-1919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GIFTS GOLD · CROSS · REPAIRS ·십자가, 성상 ·성화, 목주, 책 ·신발수선 ·금, 은, 주문제작 ·타·서초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realtorjoanne@gmail.com	주보 광고 문의 kmccga.jubo@gmail.com	부동산 전문인 SINCE 1999 VINEYARD REALTY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토지 조셉 김 678-361-6230 켈리 김 770-634-5646	부동산 전문인 Pinehill Realty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벌 · 유언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순교자 주보



에블렌티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kmccga.pastor@gmail.com | 부주임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2024년 2월 11일

NO.2238


SCAN ME





< 나병환자를 치유하시다(부분) > 코시모 로셀리,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연중 제 6 주일

성 가	입당: 45	봉헌: 214, 213	성체: 189, 172	파견: 454
제1독서	레위기 13,1-2.44-46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에 혼자 살아야 한다.			
화답송	 당 신은 저의 피신처. 구 원 의 환호 - 로 저 를 감 싸 시 나 이 다.			
제2독서	코린토 1서 10,31-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복음	마르코 1,40-45 그는 나병이 가시고 깨끗하게 되었다.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청년미사(토)	5:30pm
아침미사	8:30am
교중미사	10:30am
영어미사	12:15p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그는 나병이 가시고 깨끗하게 되었다. (마르코 1,40-45)

쉬어도 괜찮아

배영길 베드로 신부

뒤축이 닳아 물이 썰 정도로 정신없이 뛰었다.

책임감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쉬어도 괜찮아.

이만하면 충분해. 천천히 가도 충분해.



나병 환자는 절절하게 낫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을 것이고, 그 지긋지긋한 병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강한 믿음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을만큼 처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으셔서 굳이 '내가 하고자 하니'라는 말을 덧붙인 것일까? 복음을 묵상하면서 나병 환자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 '내가 하고자 하니'는 사랑 가득한 공감의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가 원하는만큼 절절하게 나도 너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굳은 믿음에 나 역시 응답해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자 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들을 어디서부터 꺼내놔야 할지도 모른채, 아니 그게 상처였는지도 모르고 휘둘리며 살다가 하느님을 다시 만났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줄곧 내게 건강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 안에는 나를 진심으로 가엾게 여기며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하시는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나병 환자처럼 "스승님께서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먼저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않고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실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자 우리가 살면서 한번쯤 해보고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대사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도와달라 했어?" 내안의 어떤 변화가 정말로 온전히 내 것이 되어 일어나려면 우선 내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저 대사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주로 나오는 것이구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도움을 청하고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곁에서 누구보다 아파하며 함께 계시고, 하고자 하시면 그 무엇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지만, 인내하며 내가 준비되기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복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께 도움을 청하는 내게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하느님의 증거로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당신 가까이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어느 날 저녁 프란치스코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 보았더니 한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추우니 잠시 방에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느냐고 간청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다시 저녁을 함께 먹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환자는 다시 부탁하기를 너무 추우니 프란치스코에게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입었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를 녹여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치스코가 일어나보니 그 환자는 온 데 간 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왔다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곧 모든 것을 깨닫고는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던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픈 이들을 위하여

이해인

몸 마음이 아파서
외롭고 우울한 이들 위해
오늘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고통을 더는 일에
필요한 힘과 도움 되지 못하는
미안함 부끄러움
면목없음 안타까움
그대로 안고 기도합니다.

정작 위로가 필요할 땐 곁에 없고
문병을 가서는 헛말만 많이 해
서운할 적도 많았지요?
'자비를 베푸소서!' 외우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이 가난하지만 맑은 눈물
작은 위로의 기도로 받아주시면
제게도 작은 위로가 되겠습니다.

고민잡을게예요.
기도할게요..





새신자 교리반 수업



푸리아 2월 월례모임



구역 조정 위원회 회의



구역장 회의



묵상 & 기도 봉헌



새신자 식사



2월 패밀리 미사



피치 라즈웰 구역 - 점심 식사 판매



세계 병자의 날... 교황, '너그러움의 문화' 호소

프란치스코 교황은 콜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와 같이 병자들을 돌보며 너그럽고 꾸밈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복음전파자라고 말했다.

“선물”

교황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개인 소유물이나 사유재산으로 축소될 수도 없기에 “병자들을 돌보는 것은 전문성, 애뜻한 마음, 솔직함,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랑 받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어루만짐처럼 자유로이 주어진 단순한 행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오늘날 무관심의 문화와 쓰고 버리는 문화 속에서는” “선물”이 오늘날의 개인주의와 사회적 분열에 대한 도전에 적합한 범주라면서, 또한 사람과 문화 간의 새로운 관계와 협력 수단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물”이란 단순히 선물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뜻한다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구를 수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선물이란 성령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육화에서 절정을 이룬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황은 이 선물의 전제인 ‘대화’도 언급했다. 대화는 사회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확립된 방법을 깨뜨릴 수 있는 인간 성장과 인간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창출해준다고 교황은 덧붙였다.

모든 이들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교황은 우리 각자가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며, 궁핍하다”고 지적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생존을 위해 부모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삶의 모든 단계에서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존재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며, 삶의 본질적인 덕목인 연대의 실천에 박차를 가하게”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신자들에게 선을 증진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따로 동떨어진 하나의 세계로서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는 형제관계로 바라볼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공동선을 목표로 한 사회적 연대의 실천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간주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황은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로 낮추시며,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가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선물을 베풀어주십니다.”

콜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지난 1993년부터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기념일(2월 11일)에 지내기로 한 ‘세계 병자의 날’은 매년 다른 도시에서 주최된다. 올해는 인도의 콜카타가 선정됐다.

교황은 콜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의 모습을 모범으로 삼았다.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에 대한 하느님 사랑을 눈에 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마더 테레사는) 온 생애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너그럽게 나눠주는 분이셨습니다.

인간 생명, 곧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과 버려지고 버림 받은 이들을 보호하고 환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모든 이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 그녀는 길거리에 죽어가는 이들과 기력이 쇠한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을 보았고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교황은 성녀가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했다”면서 “따라서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이 만든 빈곤이라는 ‘범죄’에 죄책감을 인식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황은 성녀가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에 대한 하느님의 친밀함을 전하는 웅변적인 증거자라면서, 도시의 변두리와 실존적 변두리로 나간 성녀의 사명을 묘사했다. 이어 “성녀 마더 테레사는 언어, 문화, 인종, 종교 등의 차별 없이 우리의 유일한 행동 기준이 모든 인류를 위한 이타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

교황은 보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뿐 아니라 착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을 웅변적으로 구체화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너그러움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병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제고하며 예방을 장려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특정 보건 분야에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많은 협회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교황은 혼자서 병들고 몸과 정신이 쇠약한 노인 등 수많은 이들이 자원봉사자의 활동에서 도움을 얻는다고 지적하면서, 자원봉사자들도 하여금 세속적인 세상에서 꾸준히 교회의 현존의 표징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봉사활동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는 깊은 갈망에서 나온 가치관, 행동, 생활방식 등을 전달합니다. 이는 또한 보건 분야를 좀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의료기관

교황은 가톨릭 의료기관에도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너그러우며 연대하는 모범을 보이려는 부르심을 받았다”면서 “단순히 사업을 운영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교황은 “건강이란 관계적이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존하고, 신뢰와 우정과 연대를 필요로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공유될 때라야 완전히 즐길 수 있는 보물입니다. 너그럽게 내어주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건강에 대한 지표입니다.”

끝으로 교황은 모든 이들에게 “이익의 문화, 쓰고 버리는 문화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선물의 문화, 너그러움의 문화를 모든 단계에서 장려하자”고 초대했다.

Linda Bordoni / 번역 김근영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1월 28일 (연중 제4주일)

교중미사(10:30am)...	295명	주일헌금	\$5,213.00
아침미사(8:30am)...	95명	교무금	\$5,940.00
영어미사(12:15pm)...	139명	감사헌금	\$ 50.00
청년미사(5:30pm)...	66명	지봉교회후원금.....	\$.00
미사참여 총	595명	성물방	\$101.00

교무금 명단

강규상(2)	김원봉(2)	박영희(1)	오상수(2)	이희순(2)	최인영(2)
강용조(2)	김일환(2)	박정미(2)	오정환(2)	장승희(2)	최준태(2)
길영애(1)	김주희(2)	박종흠(2)	왕일모(1,2)	장종순(2)	홍상진(2)
김남우(1)	김중환(2)	박찬규(2)	유경애(2)	전용희(2)	황등현(1)
김루시아(2)	김태규(2)	방남규(1,2)	윤석진(2)	정예근(1)	
김면기(2)	김홍자(1,2)	배정희(2)	이광자(2)	조기영(2)	
김상순(2)	김희연(2)	서상희(2)	이동춘(2)	조소춘(2)	
김연복(2)	문병호(2)	서용원(2)	이동현(1)	최규복(2)	
김영환(2)	박명화(2)	손영덕(2)	이복화(2)	최동순(2)	
김용학(1)	박영자(2)	심충섭(2)	이봉조(2)	최순례(2)	

교무금 월 약정자

강규상	김영홍	박근우	서미영	양경직	이경우	전근섭	한성인
강성태	김원봉	박남준	서상희	양경환	이동춘	전용희	한춘하
강용조	김일환	박남철	서용원	양국일	이복화	정승욱	한해선
고창민	김주희	박두환	서재욱	양재준	이봉조	정용선	허민환
곽흥배	김진용	박미헬	서혁규	오경옥	이석균	정지윤	허성일
김 훈	김태규	박송자	석대진	오규형	이성철	정창래	홍동욱
김경숙	김향순	박영자	설재규	오상수	이수진	조보현	홍서훈
김남우	김현길	박재석	성정창	오현정	이승구	조성환	홍영기
김대용	김호수	박재영	소종선	왕복실	이종길	조소춘	
김루시아	김홍섭	박재미	손영덕	원동훈	이주미	차영수	
김면기	김희연	박종흠	손칠영	원용방	이창호	천병호	
김미자	나창섭	박찬규	송경자	유경애	이준복	최동순	
김미혜	남기원	박평하	송무남	유선아	이현두	최문석	
김봉섭	남상우	방영택	송용덕	유성열	이현옥	최문영	
김상순	남현석	배광욱	송창률	유영한	이홍규	최양숙	
김성강	문명재	배정흠	심충섭	유중현	이홍철	최영갑	
김세경	민병선	배정희	심호용	윤석진	장민재	최옥란	
김영길	민수종	백현숙	안금환	윤성진	장해선	최지남	
김영철	민주미	서동민	안승범	이건수	전 흥		

교무금 새로 약정 하신 분

강비호	박경미	우장희	이 완	최규복
고창민	박병호	유경애	이창욱	최혜민
김덕자	방남규	윤지영	이치선	한규빈
김용준	서영범	이강연	이현옥	한규항
김용화	석영길	이길종	임용택	한찬욱
김홍자	스티브	이동선	임재형	현무경
도한익	심재숙	이동현	임창현	홍남식
문쌍국	오명혜	이수진	장유아	홍상진
민수종	오재찬	이은경	차유경	

교무금 약정하신 분중에 신자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자번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역미사

2/16 (금) 7:30 pm	Forsyth 구역 홍영숙 테레사 347-649-4878
2/23 (금) 6:30 pm	Dunwoody 구역 한찬욱 후벨도 201-556-8014

2024년 AA 기금 납부 현황
2024년 1월28일 (연중 제4주일)

교구 할당액.....	\$ 44,200.00
달성률	%
약정액	\$.00
누계 납부액.....	\$5,973 .00
금주 납부액.....	\$ 2,435.00

2023 AA 기금 납부자

강규상	김향순	배광욱	이상엽	전용희
김루시아	나영숙	배정희	이상호	최동순
김면기	나창섭	송기호	이석균	최준태
김상국	박근우	오상완	이성철	황등현
김원봉	박명화	원동훈	이수진	
김유니스	박정미	윤형록	이승희	
김일환	박정애	이남순	임혜수	
김재경	박평하	이동춘	장해선	

금주 후원금
감사헌금 이덕원

교무금/ AA 기금 약정/ 봉헌 안내

-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
- 교무금 내실 때 월 표시, 이름, 신자번호를 기재
- 2023년 AA기금 약정도 사무실에 문의
- 온라인 봉헌시 이름, 신자 번호, 봉헌 내역 기재
- 생미사, 연령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2/10(토) 오후 5:30			
2/11(일) 오전 8:30	박미헬	김대용 김월수	안상우 양다원 김민지
2/11(일) 오전 10:30	이경환	고근배 고숙영	박시현 홍지아 박시윤
2/11(일) 오후 12:15	Louise (SaraPark)	Matthew/Soo 정범진	양다현 성리디아 허수민
2/17(토) 오후 5:30			
2/18(일) 오전 8:30	서정원	최인영 남송은	소현서 이재후
2/18(일) 오전 10:30	이숙자	이국진 이정란	장재은 김서중 오준서
2/18(일) 오후 12:15		배윤슬 김서윤	김소현 양다해 이윤후

본당 캘린더

2월 11일	• 예비자 파견식 (교중미사중)
2월 14일	• 재의 수요일 미사
2월 25일	• 뉴난 공소 미사

봉사자들을 위한 성서 영성 독서회

- 내용: 마르코 복음
- 문의: 임혜수 404-246-1842

수요일 오전	11:30am-1:00pm	소성당
목요일 오전	10:30am-12:00pm	소성당
목요일 오후	6:00pm-7:00pm	대성전

페루' 비야 엘사바도르' 단기 선교단 모집

- 일시: 5월23일(목) ~ 6월4일(화)
- 신청 인원 및 자격: 대학생~65세 (12명)
- 봉사내용: 노동, 율동, 찬미, 태권도 등
- 문의: 김용준 로마노 770-895-1000

2024년도 로사리오 평생 대학 새학기 등록

- 등록 일시: 12월 17일부터
- 등록 장소: 친교실/성당 사무실
- 새학기 개강일: 2024년 1월 10일
- 문의: 이숙자 크리스티나 678-665-3882
서미영 아네스 404-610-0057

2023-2024년도 주일학교 등록

- 등록대상: Pre-K ~ 12학년
- 수업기간: 1월21일~5월19일(15주간)
- 등록비(일련): 1인 \$100/ 둘째 \$90/ 세째 \$80
- 문의: 이진화 로마나 770-572-4000
kmccga.youngadult@gmail.com

2023-2024학년도 대건 한국학교 등록

- 등록대상: Pre-K(만4세) ~ 12학년
- 수업기간: 1월13일~5월4일(16주간)
- 수업내용: 한국어, 한국문화/역사
- 특활수업: 미술, 태권도, 동요, 무용, 서예, 난타
- 문의: 노시현 네오미시아 678-677-3515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김미영(인덕마리아)	이기산(스테파노)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이금숙(세실리아)
류앵레(세실리아)	이수진(브렌다노)
민병숙(라파엘라)	정병수(안나)
박덕재(빅토리아)	조갑득(마리아)
박정자(테레사)	조경희(글라리아)
박종리(히야친타)	채종현(아오스딩)
박명하(요한)	최대일(프레드릭)
안정주(소피아)	최순례(아나타시아)
유옥희(모니카)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4년 세례를 받으실 분들과 견진을 받으실 분들을 위해

사순절 말씀 기도 봉헌

- 사순절 동안 매일의 복음을 읽고 10분 말씀에 머무르기
- 10분 동안 말씀에 머물면서, (1)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공부하고 생각하기 (2)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하기
- 10분의 말씀 묵상 후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관상하는 묵주기도 5단 봉헌하기
3월26일 까지 성당 입구에 마련된 봉헌함에 개인별, 혹은 단체별로 봉헌함에 넣어 주시면 부활 성야미사때 봉헌함

2023-24년도 청년 예비신자 & 견진 교리반 모집
가톨릭 신앙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접수: 사무실 & 청년회장단
- 수업기간: 2023/10/21- 2024/3/30(부활절)까지 (견진 수업: 1월 27일 부터 최소 6회 이상 수업 참여자)
-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3:45pm- 5:00pm
- 수업 외 일정: 본당 입교식, 선발식, 세례 견진 성사, 환영식
- 대상: 18세-39세 청년 (39세 이하 자녀없는 부모 포함)

2024년 부활 견진반 안내
가톨릭 신앙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접수: 사무실
- 수업기간: 2024/2/4 - 2024/3/31(부활절)까지
- 수업시간: 매주 주일 9:00am
- 수업장소: 소성당
- 등록마감 : 2024년 1월 28일
- 문의: 나상숙 스킨라스티카 678-933-7313

고등부 겨울피정
Youth Group 2024 Winter Retreat

- When: 2.16 (Fri) - 2.18 (Sun)
- Where: Glisson Camp and Retreat Center
- Cost: Early Registration (12/10 ~ 12/17) \$175
Regular Registration (12/18 ~ 1/21) \$195
- Contact: Si Lee 678-779-0923

청년 피정

- 참가자격: 18세 이상 40세 이하 모든 청년
- 일시: 2024년5월10일(금) 저녁 -12일(일) 낮
- 참가비: \$80 (학생 \$40)
- 회장단이나 오픈채팅방 혹은 인스타그램으로 문의

St.Andrew F.C. 24 봄 시즌 팀원 모집

- 대상: 3학년 ~ 12학년 남,여
- 기간: 2월 말부터 5월 초
- 신청: 돌루스성당 홈페이지 (\$100)
- 문의: Michael Yoon (neocoup@yahoo.com)